

# 우리나라의 초록시스템 — 현황, 문제 및 개선방안

최 성 진 \*

## 차 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서 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1 연구의 필요성</li> <li>1.2 연구의 목적</li> <li>1.3 자료의 수집</li> </ul> </li> <li>2. 초록지의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1 효용성</li> <li>2.2 간행기관</li> </ul> </li> <li>3. 현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1 주요 초록지</li> <li>3.2 현황의 요약</li> </ul> </li> <li>4. 문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1 빠진 분야</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2 겹친 분야</li> <li>4.3 약한 분야</li> <li>5.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1 새 초록지</li> <li>5.2 조정</li> <li>5.3 보완</li> <li>5.4 과도적 조치</li> </ul> </li> <li>6. 결 론</li> </ul> <p>참고문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록 1 — 예비조사 대상 기관</li> <li>부록 2 — 주요 초록지 간행기관</li> <li>부록 3 — 조사용지</li> </ul>
---	---

## 1. 서 언

### 1.1. 연구의 필요성

초록지는 연구자들이 필요한 문헌을 찾는데 이용하는 도구이다. 말하자면 문헌 하나 하나의 내용을 간추려서 알리는 글을 모아 정기 또는 부정기로 간행하는 것이며 이것이 없으면 연구자들은 필요한 한 두 편의 논문을 찾는데도 극단적인 경우 세계의 관련 문헌을 모두 입수하여 하나씩 차례로 읽어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많은 연구자들이 현재 사실상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 각 분야에 초록지를 통한

---

\*성균관대학교 도서관학과 교수

초보적 초록서비스마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최소한 어떤 초록지들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이며 무엇이 미비되어 있는지, 또 가진 것들은 어느 정도 완전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는 아직 행해진 바 없다. 본 연구는 그것을 하려는 것이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 출판되는 주요 연구성과들을 초록지에 수록 간행하여 배포함으로써 우리나라 각 분야의 연구자들이 언제나 쉽게 최근 동향을 알 수 있도록 초록 서비스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첫째, 우리나라에서 최근 간행되었거나 계속 간행되고 있는 주요 초록지들의 주제, 특징, 수록범위, 간행빈도, 배포범위, 이용가치, 간행전망 등을 조사 분석하고,

둘째, 그렇게 조사 분석된 결과 속에 무엇이 빠져 있고, 무엇이 겹쳐 있고, 무엇이 약한지를 진단하고,

셋째, 그렇게 진단된 문제영역들을 정보관리의 일반적 원칙들과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및 상황에 비추어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내부에만 배포할 의도로 특정 도서관이나 연구소가 작성 간행하는 종류의 초록지는 본 연구의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즉 전국적으로 또는 세계적으로 배포할 의도로 출판되는 초록지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 1.3. 자료의 수집

위의 연구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 활동내용상 중요한 초록지를 간행할 것이라 예상되는 부록1의 기관들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행하고 그 중에서 실제로 전국적 성격의 초록지를 간행하고 있는 10개 기관을 확인하였다(부록 2 참조).

이 10개 기관에서 간행하는 11개 주요 초록지의 간행목적, 주제, 수록범위, 간행빈도, 배포범위, 기록내용, 간행전망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1984년 6월 1일부터 동년 6월 30일까지 각 기관을 방문하여 부록3의 조사용지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각 기관 초록지

간행 담당 직원들과의 면담과정에서 받은 인상은 관리층의 이해 부족과 제한된 예산 및 인력으로 대부분의 현 초록지는 그 확대 또는 개선 전망이 불확실하며 어떤 획기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당분간 현상유지 이상을 기대하기는 어렵겠다는 것이었다.

## 2. 초록지의 기능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초록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을 논의하기 전에 그러한 논의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초록지의 효용성 및 간행기관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 본다.

### 2.1. 효용성

초록기사는 연구자들이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방대한 분량의 연구 문헌 속에서 필요한 문헌을 찾아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덜어 주기 위하여 작성된다. 오늘날 이미 세계에서 수백만편의 새로운 논문이 해마다 출판되고 있으나 이 분량은 계속 증대되고 있다. 사회의 어느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많은 문헌 속에서 자기 분야의 모든 문헌을 찾아 읽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사람들이 초록지를 찾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물론 연구자들이 그 모든 문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특정 시기에 있어서 그들의 활동 또는 관심사에 관련된 극히 적은 부분의 문헌인 경우가 많다. 어떤 연구자의 전공분야가 가령 상어라고 하면 상어에 관한 수백편의 학술잡지기사 중에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세 네편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나머지는 그의 정보요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글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록기사는 그의 자료 선택을 도울 수 있다. 즉 3천 단어로 된 어떤 학술잡지 기사를 입수하여 조사하는 대신 150 단어로 된 초록 기사를 읽고 그 기사의 청구 필요를 알 수 있다. 때로는 초록기사 속에 그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가 들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초록의 또 다른 기능이다.

연구자들은 최근에 발표된 연구성과들을 알아 보기 위하여 또는 과거 어떤 분야에서 발표된 많은 연구성과들을 개관하기 위하여 초록지

를 조사한다. 그들은 자기분야에 어떤 새 논문들이 나왔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가벼운 호기심으로 초록지를 훑어 볼 수도 있으나 어떤 새 연구과제에 착수하기 전에 중복연구를 피하고 또 선행연구들로 발견된 어떤 유용한 정보와 도구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진지하게 초록지를 조사할 수도 있다.

초록지는 논문의 언어 장벽을 극복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독자가 모르는 외국어로 출판된 논문이라도 초록기사가 우리말로 작성 되었으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적어도 논문의 번역을 의뢰할 필요가 있는지는 알 수 있다.

흔히 초록지를 이용하는 것은 과학자들 뿐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의사와 보건분야 종사자들도 그 방대하고 복잡한 보건관계 문헌에서 필요한 문헌을 골라 내기 위하여 초록지를 이용한다. 대학의 교수와 학생, 특히 대학원 학생들은 그들의 일상 활동의 일부로 초록지를 조사한다. 특허전문 변호사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여러 세기 동안에 발표된 그 많은 특허 문헌을 조사하는데 만일 초록지가 없다고 가정하면 그 불편이 어떻겠는가? 요컨대 과학기술분야는 물론 사회의 모든 분야 연구자와 종사자들이 기존 문헌을 능률적으로 이용하는데 있어서 초록지를 필요로 한다.

끝으로 초록지는 색인 작성자들에게도 유용한 것이다. 잘 쓰여진 초록기사는 논문의 중심 내용을 표현하는 말이 많이 들어 있으므로 자연 색인작성자들의 일차적 참고 자료가 되는 것이다.

## 2.2. 간행기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초록지는 각 분야의 연구자와 기타 종사자들이 해당 분야의 연구성과를 알아 보는데 있어서 긴요한 안내 도구이며, 대별하여 다음의 다섯 기관에서 작성되어 출판된다.

- ㉠ 산업기관
- ㉡ 학회 및 협회
- ㉢ 연구기관
- ㉣ 정부기관
- ㉤ 상업출판사

(가) 산업기관

산업기관의 주요 관심사는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산업기관에서 간행되는 초록지는 주로 자체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정보 관리업무의 일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산업기관에서는 자체의 연구 개발부서에서 생산되는 기술보고서류가 계속적으로 나와 쌓일 뿐 아니라 외부 연구개발기관에서 입수되는 연구 보고서류도 있다. 이 중요한 문헌들을 효율적으로 관리 이용하기 위하여 초록지가 간행되는 것이다. 요컨대 산업기관의 주요 관심사는 사회에 대한 정보봉사가 아니고 자체의 산업활동을 위한 것이다.<sup>1)</sup>

(나) 학회 및 협회

학회나 전문직 단체의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소속 회원들에게 해당 분야의 최근 연구 성과와 새로운 지식을 효율적으로 알리는 것이다.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회나 협회는 흔히 자체의 간행물을 포함하여 해당 분야 주요 간행물들의 내용에 대한 초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학회나 협회에서 간행되는 초록지가 현재 세계적으로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sup>2)</sup>

(다) 연구기관

여기에는 공·사립연구소, 대학, 박물관 등의 기관이 포함되며 현재 세계적으로 이러한 기관에서 출판되는 초록지는 그리 많지 않다.<sup>3)</sup>

(라) 정부기관

오늘날 정부기관은 대개 거대한 출판기관이기도 하다. 한 예로 미국의 연방정부는 그 규모면에서 세계 최대의 출판기관이다. 정부내 각 기관에서 생산되는 각종 간행물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초록지가 간행되는 것이다.

(매) 상업출판사

상업출판사가 초록지를 간행하는 기본 의도는 이윤에 있으므로 초록

- 1) FID (Federation Internationale de Documentation). Abstracting and Indexing Services. FID News Bulletin, 1974; 24:3-4.
- 2) S.V. Keenan and M. Elliot. World Inventory of Abstracting and Indexing Services. Special Libraries, 1973; 64:145-50.
- 3) H. Borko and C.L. Bernier. Abstracting Concepts and Methods. New York: Academic Press, 1975. 160.

지의 성격상 그 종수는 많지 않다. 세계적으로 전체 초록지에 대하여  
상업출판사 간행 초록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0%이다.<sup>4)</sup>

### 3. 현 황

본 장에서는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에서 간행되는 주요  
초록지의 주제, 특징, 수록범위, 간행빈도, 배포범위, 이용가치, 간행  
전망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 3.1. 주요 초록지

우리나라의 주요 초록지 하나 하나에 대하여 편의상 부록 2의 초록  
지 간행기관 열거 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제시한다.

- (ㄱ) 환경분야연구논문초록집
- (ㄴ) 국토개발연구원지
- (ㄷ) 한국박사 및 석사학위논문총목록
- (ㄹ) 해외무역정보초록지
- (ㄴ) Korean Patent Abstracts
- (비) 한국과학기술원 학위논문초록집
- (스) 교육학 학위논문초록집
- (ㅇ) Korean Medical Abstracts
- (ㅈ) Korean Scientific Abstracts
- (ㅊ) Abstracts of KAERI Publications
- (ㅋ) 학술연구조성비지원과제 논문초록집
- (ㄱ) 환경분야 연구논문 초록집

이 초록집은 국립환경연구소가 1982년 말까지 우리나라에서 조사  
연구하여 발표된 환경분야의 논문 1,411편의 초록을 수록하여 1983  
년 5월에 간행한 것이다. 환경 오염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료는 초록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방사선 오염을 다룬 자료만은 예외로 하였다.  
환경문제는 성격상 다원 복합적인 것이어서 관련 학문간의 유기적인

---

4) D.B. Cleveland and A.D. Cleveland. Introduction to Indexing and Abs-  
tracting. Littleton, U.S.A.: Libraries Unlimited, 1983. 160.

협조와 공동노력이 필요하고 여러 관련분야의 연구자들이 국가 전체의 환경관계 연구 결과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으므로 동 연구소가 이 초록집을 간행하게 되었다고 그 간행취지를 간행사에서 밝히고 있다.

#### (내) 국토개발연구원지

이것은 국토개발연구원이 1978년에 설립된 후 5년 동안에 소속 연구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연구실적들의 초록을 정리하여 다른 역사적 자료와 함께 묶어서 1983년에 간행한 것이다. 수년 내에 이 초록 부분에다 그 후의 실적을 더하여 별책으로 간행할 계획이다.

#### (대) 한국 박사 및 석사학위논문 총목록

이것은 국회도서관이 그 해 한해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수여된 박사학위 및 석사학위 취득자들의 학위청구논문을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 부문으로 나누어 수록하여 1969년부터 연간으로 간행하는 목록이다. 이것은 외형상으로 목록이지만 「인문·사회과학」 부문의 각 박사학위논문 기록 아래에는 키워드와 초록이 첨부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사실상의 초록지로 되어 있다. 첨부된 초록은 논문 속에 포함된 본인의 초록기사(약 600자)를 그대로 사용하며 초록 수집이 불가능한 것은 논문의 목차로써 대신하고 있다. 이러한 초록기사들이 이 목록 이용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 분명하나 「자연과학」 부문과, 「인문·사회과학」 부문의 석사학위 논문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다.

#### (대) 해외무역정보초록지

이 초록지는 대한무역진흥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무역정보 집중관리체계 확립의 일환으로 기획된 것이며, 이 무역 자료실에 수집된 자료 중 수출 진흥에 긴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를 선택하여 초록을 작성하고 지역별, 주제별로 묶어서 1980년 이래 동 공사가 부정기로 간행하는 것이다. 이 초록지에 수록된 초록의 원문헌은 동 공사 정보관리부에 초록번호에 따라 백열 보존되어 있으며, 열람이 공개되어 있다.

#### (대) Korean Patent Abstracts

이 초록지는 특허청에 출원된 국내 특허들의 영문 초록을 작성하여 특허청과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이 공동으로 간행하며 한 호에는 약 200건의 특허초록이 수록된다. 분류기호는 「INID」(Internatio-

nally Agreed Number of the Identification of Data)가 사용 되고 있다.

(배) 한국과학기술원 학위논문 초록집

이 초록집은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그 해 한해동안에 수여된 모든 박사 및 석사학위의 청구논문을 영문으로 초록하여 1975년부터 연간으로 간행하는 것이다. 연간으로 간행된 초록지는 3년마다 한번씩 누가 합본하여 간행된다. 수록된 초록은 논문 속에 포함된 본인의 초록기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논문 표제를 전산처리하여 마련된 키워드 색인을 뒤에 붙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3,500 원 (또는 미화5불)의 정액 요금을 내고 청구하면 누구나 초록의 원논문의 복사본을 얻을 수 있다.

(바) 교육학 학위논문초록집

이 초록집은 한국교육개발원이 1962년으로 부터 1980년 사이에 우리나라 대학에서 수여된 교육학분야의 박사 및 석사학위 취득자들의 학위청구논문들에 대한 개요초록을 작성하여 간행한 것이다. 이 초록집은 다음의 다섯 편으로 나누어 간행되었다.

- (ㄱ) 교육철학·이념편
- (ㄴ) 교육사편
- (ㄷ) 교육심리편
- (ㄹ) 교육사회편
- (ㄴ) 교육과정편

수록된 초록기사는 연구의 목적, 가설, 방법, 결론 및 제언을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բ) Korean Medical Abstracts

이 초록지는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이 80여종의 국내 의학잡지 및 기타 보고문헌 속에 발표되는 연구보고서 약 130편을 정선하여 영문으로 작성한 초록기사를 1970년 이래 제간으로 간행하는 것이다. 소정의 요금을 내고 동 연구원에 청구하면 원문헌의 복사 및 번역봉사가 제공된다.

(사) Korean Scientific Abstracts

1968년 이래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이 격월간으로 간행하고 있는 이 영문초록지는 각 호에 50여종의 국내 자연과학 분야 잡지 및 기타



보고문헌 속에 발표되는 연구보고서 약 120 편의 초록기사를 수록한다. 소정의 요금을 지불하고 동 연구원에 청구하면 원문헌의 복사 및 번역 봉사가 제공된다.

#### (제) Abstracts of KAERI Publications (1959-1976)

이 초록집은 표시된 기간중, 즉 원자력청 창설 이후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이르는 동안 이 두 기관을 포함하여 원자력원, 원자력연구소, 방사성농학연구소 및 방사선의학연구소의 소속 연구자들이 발표한 논문과 이 연구소들의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 보고서들의 영문초록을 체계적으로 편집하여 1978년에 한국에너지연구소의 전신인 한국원자력연구소가 간행한 것이다. 소정의 요금을 지불하고 동 연구소 기술정보실에 청구하면 이 초록집에 수록된 초록의 논문 복사본이 제공된다.

#### (가) 학술연구조성비지원과제 논문초록집

이 초록집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이 그 해 한해동안의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연구과제중 대학일반배정분과 서울대학교 일반배정분에서 발표된 연구논문의 초록을 1981년 이래 간행하는 것이다. 수록되는 초록기사는 「DDC」분류표에 의하여 10개 학문 분야로 분류하여 배열하고 있다.

### 3.2. 현황의 요약

우리나라에서 간행되는 위의 주요 초록지들을 간추려 한데 모아 표시하면 표 1과 같다.

## 4. 문 제

앞의 제 3장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초록지들을 대강 훑어 보았다.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한 나라의 효율적 초록시스템을 형성하기에는 어딘지 불완전하고 빈약한 것 같은 인상을 준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빠져 있고, 무엇이 중복되어 있고 무엇이 약한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초록시스템의 그러한 문제점들을 밝혀서 제시하려는 것이다.

### 4.1. 빠진 분야

현재 우리나라에서 간행되고 있는 초록지들이 한 나라의 초록수요를

표 1. 주요 초록지

주제분야	초록지명	간행부서	간행빈도	수 록 범 위
전 문 야	학술연구조사선비지원 과제논문문초록집	한국학술진흥재단	연 간	1981년 이후의 학술 연구 조성 비에 의한 연구과제 중 대학일 반배정분의 연구보고서
"	한국박사 및 석사학 위논문총목록	국회도서관	"	국내에서 수여된 박사학위 및 석사학위 취득자들의 학위 청구 논문
교 육	교육학 학위 논문 초록집	한국교육개발원	부정기	1962년 이후 국내에서 통과된 교육학분야의 박사 및 석사학 위 논문
무 역	해외 무역정보초록지	대한무역진흥공사	"	본 공사 무역자료실에 수집된 자료 중 수출진품에 관한다고 생각하여 선정된 자료
과학·기술	Korean Scientific Abstracts	한국산업경제기술 연구원	격월간	50여종의 선정된 국내 과학기 술잡지, 기타 문헌 속에 발표 되는 연구보고서(매호 약 120 편의 영문초록 수록)
"	한국과학기술학위논문 초록집	한국과학기술원	연 간	본원에서 수여된 박사 및 석사 학위 청구논문들에 대한 영문초 록
의 학	Korean Medical Abstracts	한국산업경제기술 연구원	제 간	80여종의 선정된 국내 의학잡 지, 기타 보고문헌 속에 발표 되는 의학관계 연구논문(매호 약 130편의 영문초록 수록)
원 자 력	Abstracts of KAERI Publications	한국에너지연구원	부정기	한국원자력연구소 및 전신기관 들에서 간행된 논문과 기타 국 내 간행물에 게재된 원자력관 계 연구논문
환 경	환경분야 연구논문 초록집	국립환경연구원	"	국내에서 조사연구하여 발표된 환경분야 연구논문
구조관리	구조개발연구원지	구조개발연구원	단행본	본 연구원 소속 연구자들의 5 년간 연구실적
특 허	Korean Patent Abstracts	특허청	부정기	특허청에 출원된 국내 특허의 영문초록

포괄적으로 충족시키기에 충분한지, 그렇지 않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가 빠져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하여 표 2를 작성하였다. 표 2는 한국심진분류표에 우리나라의 주요 초록지들을 기입한 것이다. 표 2에 분명하게 표시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주요 초록지는 한국심진분류표상

표 2. 주요 초록지의 주제분야(유별)

한국심진분류표		주요 초록지
분류번호	유명	
000	총 류	학술연구조성비지원과제논문 초록집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박사 및 석사학위논문 총목록 (국회도서관)
100	철 학	
200	종 교	
300	사회과학	해외무역정보초록집 (대한무역진흥공사) 교육학 학위논문초록집 (한국교육개발원)
400	순수과학	Korean Scientific Abstracts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 Abstracts of KAERI Publication (한국에너지연구소)
500	기술과학	Korean Patent Abstracts (특허청) 한국과학기술원학위논문초록집 (한국과학기술원) Korean Medical Abstracts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 환경분야연구논문초록집 (국립환경연구소) 국토개발연구원지 (국토개발연구원)
600	예 술	
700	어 학	
800	문 학	
900	역 사	

의 9개 주제분야 중 3개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다음의 6개 분야에는 전무하다.

- ㉠ 철학
- ㉡ 종교
- ㉢ 예술
- ㉣ 어학
- ㉤ 문학
- ㉥ 역사

이것은 위의 6개 분야 연구자들이 국내에서 출판되는 자기 분야 또는 인접 분야 연구성과를 알아 보려면 반드시 각종 학술잡지나 기타 보고문헌을 직접 찾아서 읽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초록서비스'의 부재에서 오는 정보 유통상의 비효율과 혼란이 해당 분야 연구활동의 생산성을 저하시킬 것은 분명하다. 물론 표2의 종류 분야에 들어 있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연구조성비 지원과제논문초록집」과 국회도서관의 「한국박사 및 석사학위논문총목록」이 일반적으로나마 위의 6개 분야에 대한 초록서비스를 수행하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지만 식재에 있어서 전자는 그 수록 범위가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연구논문으로 제한되어 있고, 후자 또한 인문·사회과학부문의 박사학위논문으로 그 수록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서 실질적 초록서비스의 효과는 미미한 것이다. 요컨대 위의 6개 분야에 대한 전국적이며 포괄적인 초록서비스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2에서 초록서비스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3개 분야(사회과학, 순수과학 및 기술과학)도 자세히 살펴 보면 그 분야들에서 활동하는 모든 연구자들이 고루 초록서비스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표3은 이를 더 분명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한국심진분류표의 유강목 아래에 국내 주요 초록지를 기입한 것이다.

표3을 보면 표2를 보고 초록서비스 면에서 그래도 다행이었다고 생각한 3개 분야 즉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분야의 다수 연구자들도 자기 관심분야의 국내 연구성과에 대한 초록서비스를 거의 또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과학 9개 분야 중에서는 2개 분야, 순수과학에서는 1개 분야, 기술과학에서는 2개 분야에서만 연구자들이 제한된 범위의 것이기는 하나 국내의 최근 연구성과에 대한 초록서비스를 받고 있을 뿐이다. 여기서 순수과학분야의 「Korean Scientific Abstracts」(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와 기술과학분야의 「Korean Patent Abstracts」(특허청) 및 「한국과학기술원 학위논문초록집」(한국과학기술원)이 일반적 성격의 초록지이기 때문에 단위 분야의 초록서비스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기대할 수 있으나 자세히 살펴 보면 그 중의 두 영문 초록지는 본래 외국 연구자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국내 연구성과만을 선정 수록하여 알리려는 의도로 출판되는 것이고 나머지 하

표 3. 주요 초록지의 주제분야(강별)

한국십진분류표		주요 초록지
분류 번호	유·강명	
300	사회과학	
310	통계학	
320	경제학	해외무역정보초록지 (대한무역진흥공사)
330	사회학· 사회문제	
340	정치학	
350	행정학	
360	법학	
370	교육학	교육학학위논문초록집 (한국교육개발원)
380	풍속·민속학	
390	국방·군사학	
400	순수과학	Korean Scientific Abstracts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
410	수학	
420	물리학	Abstracts of KAERI Publications (한국에너지연구소)
430	화학	
440	천문학	
450	지학	
460	광물학	
470	생물과학	
480	식물학	
490	동물학	
500	기술과학	Korean Patent Abstracts (특허청) 한국과학기술원학위논문초록집 (한국과학기술원)
510	의학	Korean Medical Abstracts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 환경분야 연구논문초록집 (국립환경연구소)
520	농업·농학	
530	공업일반· 토목공학	국토개발연구원지 (국토개발연구원)
540	건축공학	
550	기계공학	
560	전기공학	
570	화학공학	
580	제조업	
590	가사·가정학	

나는 한 교육기관의 학위청구논문만을 수록하는 것이어서 그러한 종합적 기능은 미미한 것이다.

결국 한국십진분류표 상의 9개 주제분야 중 현재 국내 연구성과에 대한 초록서비스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분야를 종합하여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 철학. 전 분야
- ㉡ 종교. 전 분야
- ㉢ 사회과학. 통계학  
사회학·사회문제  
정치학  
행정학  
법학  
풍속·민속학  
국방·군사학
- ㉣ 순수과학. 수학  
화학  
천문학  
지학  
광물학  
생물과학  
식물학  
동물학
- ㉤ 기술과학. 농업·농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화학공학  
제조업  
가사·가정학
- ㉥ 예술. 전 분야
- ㉦ 어학. 전 분야
- ㉧ 문학. 전 분야
- ㉨ 역사. 전 분야

## 4.2. 겹친 분야

앞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소수 분야의 연구자들만이 초록지를 통하여 최근의 국내 연구성과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음을 알았다. 그 소수 분야에 마련된 초록서비스나마 각 초록지들 사이에 겹치고 낭비되는 부분은 없는지? 있다면 그런 부분은 당연히 조정활동을 통하여 제거되고 거기서 절약되는 자원이 다른 분야로 초록서비스를 확대하는데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간행되어 전국적으로 또는 세계적으로 배포되고 있는 초록지는 모두 11 종에 불과하므로 그들 사이에 명백한 중복 노력 같은 것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표 2를 자세히 살펴 보면 다음의 두 곳에 부분적 중복과 비능률이 개재하여 조정을 요함을 알 수 있다.

(1) 표 2에 표시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11개 주요 초록지 중 3개(27.3%)는 학위논문초록지이다. 이것은 전체 연구논문 속에서 학위논문이 차지하는 질적 양적 비중으로 보아 다소 많다는 인상을 준다. 실제로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학학위논문초록집」과 국회도서관의 「한국박사 및 석사학위논문총목록」의 내용은 일부 중복되어 있다. 전자에는 우리나라 대학에서 수여된 교육학분야의 박사 및 석사학위 취득자들의 학위청구논문에 대한 초록이 수록되고, 후자의 「인문·사회과학」 부문 박사학위 논문 기록 아래에는 키워드와 초록이 첨부되므로 교육학 박사학위논문의 초록은 양자에 중복 수록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과학기술원은 1975년 이래 동 원에서 수여된 모든 박사 및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영문초록을 모아 「한국과학기술원 학위논문초록집」을 간행 배포하고 있다. 초록서비스가 빈약한 현 상황에서는 이러한 개별적 노력이 연구자들에게 다소간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모든 국내 대학들이 동 원의 예를 따르게 된다면 그때에는 도움보다 더 많은 혼란을 이용자들에게 주게 될 것이다. 어떤 능률적 통합사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 환경분야논문의 초록도 부분적으로 두 초록지에 중복 수록되어 있다. 즉 「국토개발연구원지」속에 포함된 환경관계 논문들의 초록이 상당 수 국립환경연구소의 「환경분야연구논문초록집」 속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 두 연구소가 모두 국고 지원으로 운영되므로 예산 승인

단계에서의 조정을 통하여 중복없는 합리적 초록지 간행조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 4.3. 약한 분야

끝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간행 배포되고 있는 11개 주요 초록지는 어느 정도로 충실하며, 각각 해당 분야에서 포괄적이며 체계적인 초록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 볼 차례다. 초록지를 평가하는 기준은 여러가지일 수 있으나 우리나라 현 상황에서의 제일차적 기준은 수록범위의 포괄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준에 따라 아래에 표3의 11개 초록지들을 살펴 본다.

(1) 사회과학 분야에는 대한무역진흥공사의 「해외무역정보초록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학학위논문초록집」이 있으나 두 초록지가 모두 특수하고 제한된 수록범위의 것이다. 전자는 편의상 경제학 분야에 포함시켰으나 이것은 본래 경제학 연구자들을 위한 학술논문 초록지를 표방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 무역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각종 정보자료를 모아 초록한 것이며, 후자는 우리나라 대학에서 수여된 교육학 분야의 박사 및 석사학위 취득자들의 학위청구논문들에 대한 초록만을 수록하고 일반연구논문들은 수록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시 말하면 이 초록지도 교육학 분야의 매우 제한된 범위의 논문들에 대한 초록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한마디로 사회과학 분야의 어느 단위 분야에도 포괄적이며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초록서비스는 없다.

(2) 순수과학 분야에도 2종의 초록지가 있다.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원의 「Korean Scientific Abstracts」와 한국에너지연구소의 「Abstracts of KAERI Publications」이며 둘 다 영문초록이다. 영문초록이라는 사실이 말해 주듯이 두 초록지는 기본적으로 외국 연구자들에게 국내 연구성과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 바꿔 말하면 국내 연구자들에게 배포할 의도로 간행되는 초록지는 순수과학 분야에 없다. 설사 국내 연구자들이 이 두 초록지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록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어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Korean Scientific Abstracts」는 자연과학 분야 종합초록지로서 50여종의 대표적 국내 과학잡지 및 기타 보고문헌 속에 발표되는 연구보고서 중에서 선정된 약 120 편의 초록 기사를 두달에 한번씩 간행하는 정도이므



로 유용성이 적고 물리학 분야의 「Abstracts of KAERI Publications」 또한 그 수록범위가 핵물리학 부문의 연구성과에 국한되어 있어서 유용성이 적다. 결국 위 사회과학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순수과학 분야의 어느 단위 분야에도 포괄적이며 다수 연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유용한 초록지는 없다.

(3) 적어도 숫적으로는 기술과학분야에 가장 많은 초록지(5종, 45.5%)가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각 초록지의 수록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다수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초록매체가 미비되어 있기는 이 분야도 마찬가지다. 두 영문초록 즉 특허청의 「Korean Patent Abstracts」와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의 「Korean Medical Abstracts」는 기본적으로 외국 연구자들에게 배포할 의도로 간행하는 것이다. 나머지 3종의 초록지 즉 한국과학기술원의 「한국과학기술원 학위논문초록집」, 국립환경연구소의 「환경분야연구논문초록집」 및 국토개발연구원의 「국토개발연구원지」도 그 수록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3.1참조) 이 분야의 다수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초록지는 없다.

(4)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에는 각 단위분야에 유용한 초록지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과도적으로 종합초록지류가 어느 정도 공백을 메울 수 있다. 표2를 보면 그러한 종합초록지는 2종이 있다. 즉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연구조성비지원과제논문초록집」과 국회도서관의 「한국박사 및 석사학위논문총목록」이다. 전자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이 매년 그 해의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연구과제 중 대학일반배정분과 서울대일반배정분에서 발표된 연구논문의 초록집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전체 연구성과에 비추어 숫적으로는 수록범위가 제한되어 있지만 중요한 연구성과를 많이 수록하며, 국내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지원사업 중 하나인 본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각 분야 연구성과를 한 곳에서 망라적으로 조사할 수 있어 연구의 아이디어를 얻음과 동시에 중복연구를 피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용한 초록지이다.

후자는 국회도서관이 매년 그 해에 우리나라에서 수여된 박사학위 및 석사학위 취득자들의 학위청구논문을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 부문으로 나누어 수록하여 1969년부터 연간으로 간행하는 목

록이지만 「인문·사회과학」 부문의 각 박사학위논문 기록 아래에는 키워드와 초록이 첨부되어 있어 이 부분은 사실상의 초록지로 되어 있다. 이러한 초록이 연구자들 특히 처음으로 연구활동을 시작하는 대학원 학생들에게는 큰 도움을 줄 것이 분명하나 다만 「자연과학」 부문과, 「인문·사회과학」 부문의 석사학위 논문에는 아직 이것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이 아쉽다.

## 5. 개선방안

전 장에서 우리나라 초록시스템의 문제 영역들을 두루 진단하고 차 문제의 구체적 증상을 정의하여 제시하였다. 본 장에서는 그렇게 제시된 문제들을 정보관리의 일반적 원칙들과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및 상황에 비추어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 5.1. 새 초록지

앞의 4.1 에 열거된 바와 같이 현재 국내 연구성과에 대한 초록서비스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어서 연구보고서 원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연구자들이 국내 동료 연구자들의 연구성과를 알 길이 없는 분야가 6 개나 있다. 다음에 열거하는 이 6개 분야에는 적어도 1종 이상의 새로운 종합초록지가 지체없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 철학
- ㉡ 종교
- ㉢ 예술
- ㉣ 어학
- ㉤ 문학
- ㉥ 역사

종합초록지라고 하는 것이 그 성격상 관심 밖의 부분을 많이 포함하여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흠은 있으나 일시에 많은 새 전문 초록지를 요구할 수 없는 현실적 상황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

불완전하나마 초록서비스가 존재하는 사회과학, 순수과학 및 기술과학 분야의 경우는 위의 6개 분야와 사정이 다소 다르다. 학문의 내용 또는 방법상 이 3개 과학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초록서비스를

한층 더 요구한다. 현재 초보적이고 부분적이기는하나 이 3개 분야에만 초록서비스가 존재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현재 초록지가 없는 다음의 모든 단위분야에 1종 이상의 새로운 전문 초록지가 지체없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사회과학

- ① 통계학
- ② 사회학
- ③ 정치학
- ④ 행정학
- ⑤ 법학
- ⑥ 민속학
- ⑦ 군사학

㉡ 순수과학

- ① 수학
- ② 화학
- ③ 천문학
- ④ 지학
- ⑤ 광물학
- ⑥ 생물과학
- ⑦ 식물학
- ⑧ 동물학

㉢ 기술과학

- ① 농학
- ② 건축공학
- ③ 기계공학
- ④ 전기공학
- ⑤ 화학공학
- ⑥ 제조업
- ⑦ 가정학

이제 문제는 어디서 그 초록지들을 준비하고 간행하며, 돈은 있는가라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각 분야에 많은 학회가 설립되어 있으므로 이 학회들에게 해당 분야의 초록지 간행사업을 맡기는 것이 한

방안일 것이다. 초록서비스의 혜택을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그 분야의 학회원들이기 때문이다. 많은 외국의 경우처럼 각 분야의 초록지출판을 능력있는 학회를 선정하여 맡긴다면 어디서 출판하느냐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결국 한가지 남는 문제는 초록지출판에 필요한 돈을 어디서 구하느냐 하는 것이다.

초록지는 그것을 어떤 기관에서 출판하든 기본적으로 그 기관 밖의 이용자들을 위한 것이다. 외부 이용자들에게 대한 봉사는 결국 국가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이에 는 국고로부터의 지원이 당연할 것이다. 학술정보관리를 위한 국고지원은 학술진흥법시행령<sup>5)</sup>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다. 이 시행령의 제 27 조에는 아래와 같이 초록지 간행기관에 대한 국고지원의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다.

제 27 조 ( 학술정보협력기관의 지정 ) ① 문교부장관은 학술정보의 관리 이용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을 학술정보 교환의 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결국 위의 규정에 따라 문교부장관이 각 분야의 유능한 학회들을 골라 학술정보 교환 협력기관으로 지정하면 초록지 간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할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이다.

## 5.2. 조 정

얼마 안되는 초록지들의 내용상에도 중복이 있고 이로 인한 자원의 낭비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초록기사의 중복 게재나 분산은 단지 자원의 낭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에게는 혼동을 주는 것이다. 앞의 4.2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학학위논문초록집」과 국회도서관의 「한국박사 및 석사학위논문총목록」에 국내에서 수여된 교육학박사학위논문의 초록이 중복 게재된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다. 이 문제는 국회도서관이 「한국박사 및 석사학위논문총목록」의 「인문·사회과학」부문 박사학위 논문에만 초록기사를 첨

5) 학술진흥법시행령 ( 대통령령 제 9991 호, 1980.8.16 )

부하여온 지금까지의 방침을 모든 부문, 모든 학위 논문에 확대 적용하고 「교육학학위논문초록집」의 간행을 중단하게 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방안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박사 및 석사학위논문총목록」의 유용성이 한층 높아질 뿐 아니라 「한국과학기술원학위논문초록집」과 같은 기존 또는 계획중의 대학원별 학위논문초록지가 모두 불필요하게 될 것이다.

환경분야 논문의 초록이 국립환경연구소의 「환경분야연구논문초록집」과 국토개발연구원의 「국토개발연구원지」속에 중복 게재된다는 사실도 지적되었으나 이문제는 초록지 표제에 나타난 주제개념으로 보아 앞으로 후자에서는 환경관계 논문초록부분을 빼고 이용자들로 하여금 전자를 참고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5.3. 보 완

(1) 위의 5.2에서 「한국박사 및 석사학위논문총목록」의 모든 학위, 모든 부문을 초록지화하고 「교육학학위논문초록집」은 폐간하도록 제의되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 이 초록집은 교육학분야의 일반학술논문 초록지로 내용과 체제를 바꾸어서 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사회과학분야에 존재하는 다른 한 초록지는 「해외무역정보초록지」이다. 이 초록지는 국내 무역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믿어서 수집된 잡다한 정보자료의 초록이나 여러가지 무역경영상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러한 자료만으로는 부족을 느낄 것이다. 즉 이론적이고 거시적인 지식과 자료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무역정보초록지의 부족을 메우고 또 국내 경제학자들의 일반적 요구에도 부응하는 뜻에서 「해외무역정보초록지」의 자매지로서 경제학초록지를 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물리학분야의 「Abstracts of KAERI Publications」는 한 연구소내에서 이루어진 핵물리학분야의 연구성적을 알리기 위하여 간행되며 이러한 초록지의 유용성은 그 수록범위의 제한으로 보통 낮은 것이다. 이 초록지는 그 유용성을 높이고, 전물리학 분야에의 기여도를 늘리기 위하여 국내 핵물리학분야의 전 연구성적에 대한 초록지, 더 기대할 수 있다면 물리학초록지로 확대 개편하여야 할 것이다.

(4) 국토개발연구원의 「국토개발연구원지」도 위 「Abstracts of

KAERI Publications」와 같은 이유로 토목공학분야의 전 연구성과에 대한 초록지 즉 토목공학초록지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우리나라에는 외국 연구자들에게 배포할 의도로 간행되는 3종의 영문초록지가 있다. 그것은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의 「Korean Scientific Abstracts」와 「Korean Medical Abstracts」 및 특허청과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 공동 간행의 「Korean Patent Abstracts」이다. 여기서 처음의 두 초록지는 그 수록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어 국제자료교환용 이상의 실질적 가치는 거의 없다. 오늘의 국내 과학분야 연구출력은 「Korean Scientific Abstracts」가 간행되기 시작한 1968년의 상황에 비하면 크게 늘어났고 또 과학분야의 종합초록지라는 것이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므로<sup>6)</sup> 이 초록지는 폐간하고 거기서 절약되는 자원을 같은 연구원에서 간행하고 있는 「Korean Medical Abstracts」를 보완하고 충실하게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초록지는 영문으로 출판되지만 대부분의 의학과 의사가 영문을 읽을수 있어 큰 불편을 느끼지 않을 것이므로 국내용을 겸하여 수록범위를 대폭 늘리고 간행빈도는 월간 또는 격주간으로 늘려서 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5.4. 과도적 조치

위에서 논의된 각 분야의 전문초록지가 모두 간행되어 우리나라에 기본적인 초록서비스시스템의 틀이 마련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을 요할 것이다. 그때까지의 과도적 조치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과도적 조치를 마련하는 한 방안은 기존 초록지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들을 망라하는 수준의 종합초록지를 어떤 국립기관에서 간행하는 일일 것이다. 즉 첫째, 현재 부분적으로만 적용하고 있는 국회도서관의 「한국박사 및 석사학위논문총목록」의 초록기능을 전면 확대 적용하고, 둘째, 현재 정부의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연구논문으로 수록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연구조성비 지원과제논문초록집」을 다른 초록지들에 수록된 논문과 학위 청구 논문을 제외한 국내

6) D.B. Cleveland and A.D. Cleveland. Op. Cit. 158-9.

전 연구성과를 수록하는 초록지로 내용을 확대 개편하여 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6. 결 론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초록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검토한 후에 얻어진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가) 현재 국내 연구성과에 대한 초록서비스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어서 연구보고서 원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연구자들이 국내 동료 연구자들의 연구성과를 알 길이 없는 다음의 6개 분야에는 적어도 1종 이상의 새로운 종합초록지가 지체없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1) 철학
- (2) 종교
- (3) 예술
- (4) 어학
- (5) 문학
- (6) 역사

(나) 현재 불완전하나마 초록서비스가 존재하는 사회과학, 순수과학 및 기술과학의 3개 과학분야는 학문의 성격상 다른 분야들에 비하여 한층 더 초록서비스를 요구하므로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다음의 모든 단위분야에 1종 이상의 새로운 전문초록지가 지체없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1) 사회과학
  - ㉠ 통계학
  - ㉡ 사회학
  - ㉢ 정치학
  - ㉣ 행정학
  - ㉤ 법학
  - ㉥ 민속학
  - ㉦ 군사학
- (2) 순수과학
  - ㉧ 수 학

- ㉠ 화 학
- ㉡ 친문학
- ㉢ 지 학
- ㉣ 광물학
- ㉤ 생물과학
- ㉥ 식물학
- ㉦ 동물학
- (3) 기술과학
  - ㉧ 농 학
  - ㉨ 건축공학
  - ㉩ 기계공학
  - ㉪ 전기공학
  - ㉫ 화학공학
  - ㉬ 제조업
  - ㉭ 가정학

(대) 위의 (가) 및 (나)의 초록지 간행은 각 분야의 유능한 학회들 중에서 선정하여 맡기고, 간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술진흥법시행령 제 27 조에 따라 국고에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라) 국회도서관이 「한국박사 및 석사학위논문총목록」의 「인문·사회과학」부문 박사학위 논문에만 초록기사를 첨부하여 온 지금까지의 방침을 모든 부문, 모든 학위 논문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이 총목록의 유용성을 높이고 「교육학학위논문초록집」, 「한국과학기술원학위논문초록집」등 분야별, 대학별 학위논문초록집의 산발적 출현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마) 사회과학분야에 존재하는 두 초록지 중 「교육학학위논문초록집」은 교육학분야의 국내 전 연구성과를 포괄하는 일반학술논문초록지로 개편하여 간행하고, 「해외무역정보초록지」는 무역자료초록지와 경제학초록지로 개편 분리하여 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바) 물리학분야의 「Abstracts of KAERI Publications」는 그 유용성을 높이고 전 물리학분야에의 기여도를 늘리기 위하여 국내 핵물리학분야 전 연구성과에 대한 초록지, 또는 물리학초록지로 확대 개편하여 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 외국 연구자들에게 배포할 의도로 간행되는 3종의 영문 초록지 중 「Korean Scientific Abstracts」는 그 수록범위가 제한되고 오 늘의 우리나라 상황에 맞지 않으며, 국제자료교환 이상의 실질적 가 치가 거의 없으므로 이를 폐간하고, 거기서 절약되는 자원을 「Korean Medical Abstracts」를 확대 개편하고 그 간행 빈도를 늘리는데 사 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나) 각 분야의 전문초록지가 모두 간행되어 우리나라에 기본적 초록 서비스의 틀이 마련되기까지의 과도적 조치로서 첫째, 현재 부분적으 로만 적용하고 있는 국회도서관의 「한국박사 및 석사학위논문총목록」 의 초록기능을 전면 확대 적용하고, 둘째, 현재 정부의 학술연구조성 비에 의한 연구논문으로 수록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한국학술진흥재단 의 「학술연구조성비지원과제논문초록집」을 다른 초록지들에 수록된 논문과 학위청구논문을 제외한 국내 전 연구성과를 망라하는 종합초 록지로 내용을 확대 개편하여 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 참 고 문 헌

- Borko, H.; Bernier, C.L. Abstracting Concepts and Methods. New York: Academic Press, 1975.
- Cleveland, D.B.; Cleveland, A.D. Introduction to Indexing and Abstracting. Littleton, U.S.A.: Libraries Unlimited, 1983.
- FID(Federation Internationale de Documentation). Abstracting and Indexing Services. FID News Bulletin. 1974; 24: 3-4.
- Keenan, S.V.; Elliot, M. World Inventory of Abstracting and Indexing Services. Special Libraries. 1973; 64:145-50.

〈부록 1〉 예비조사 대상 기관

1. 공업진흥원
2. 국립공업시험원
3. 국립건설연구소
4. 국립노동과학연구소
5. 국립보건원
6. 국립수산진흥원
7. 국립중앙도서관
8. 국립환경연구소
9. 국제문제조사연구소
10. 국토개발연구원
11. 국토통일원
12. 국회도서관
13. 대한무역진흥공사
14. 부산수산대학
15. 북한연구소
16. 서울대학교
17. 외교안보연구원
18. 임목육종연구소
19. 임업시험장
20. 특허청
21. 학술원
22. 한국개발연구원
23.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4. 한국공업표준협회
25. 한국교육개발원
26. 한국기계연구소
27. 한국동력자원연구소
28.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
29. 한국산업은행
30. 한국에너지연구소

31. 한국은행
32. 한국전기통신연구소
33. 한국전력주식회사 기술연구소
3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35. 한국축산과학연구소
36. 한국표준연구소
37. 한국학술진흥재단
38. 한국해양대학
39. 한국화학연구소

〈부록 2〉 주요 초록지 간행 기관

1. 국립환경연구소
2. 국토개발연구원
3. 국회도서관
4. 대한무역진흥공사
5. 특허청
6. 한국과학기술연구원
7. 한국교육개발원
8.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
9. 한국에너지연구소
10. 한국학술진흥재단

< 부록 3 > 조사용지

- 1. 기관명 :
- 2. 설립년 :
- 3. 설립의 법적 근거 (법명, 조문, 공포년월일 등) :
- 4. 간행 초록지 :

주체	표	제	수룩	간행	발행	기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 **The Abstracting Services in Korea : The Present State, Problems and Some Suggestions for Action in the Future**

Sung Jin Choi\*

The main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survey the major abstracting bulletins of national nature in Korea, to define such problem areas as lacunae, duplicates and limitation in coverage in the abstracting services currently available in Korea, and to make some suggestions for action for improving the abstracting services in the light of general principles and the tradition and situations unique to Korea.

The major conclusions reached at this study are summarised as follows:

(A) A new abstracting bulletin of general nature covering the whole field needs to be created in each of the following fields where no established abstracting service is available for the outcome of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in Korea.

- (1) Philosophy
- (2) Religion
- (3) Art
- (4) Language
- (5) Literature
- (6) History

(B) A new specialised abstracting bulletin needs to be created in each of the following fields of science where abstracting services limited in coverage are partially available.

- (1) Social sciences

---

\* Professor of Library Science, Sung Kyun Kwan University

- (a) Statistics
- (b) Sociology
- (c) Political science
- (d) Public administration
- (e) Law
- (f) Folklore
- (g) Military science
- (2) Pure sciences
  - (a) Mathematics
  - (b) Chemistry
  - (c) Astronomy
  - (d) Geology
  - (e) Mineralogy
  - (f) Life sciences
  - (g) Botany
  - (h) Zoology
- (3) Applied sciences
  - (a) Agriculture
  - (b) Architectural engineering
  - (c) Mechanical engineering
  - (d) Electrical engineering
  - (e) Chemical engineering
  - (f) Manufacturing industry
  - (g) Domestic science

(C) Publication of the abstracting bulletins suggested in (A) and (B) above may be ideally carried on by a qualified learned society established in the respective field, and should be financially supported by the public fund under the provisions of Art. 27 of the Research Promotion Act of 1979.

(D) The current practice of adding the author's abstract and keywords to each of the records of the "Doctoral These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part of the "Catalogue of

Doctoral and Master's Theses Submitted to the Universities in Korea" published by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should be applied to all the other parts, i. e. to the parts of the "Master's These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nd of the "Doctoral and Master's Theses in Natural Sciences," which will not only increase the Catalogue's use value but also discourage appearance of various theses abstracts of individual academic institutions such as the "Abstracts of the Doctoral and Master's Theses Submitted to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which will in turn reduce inefficiency involved in the abstracting services at national level.

(E) A general abstracting bulletin covering most part of the outcome of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in Korea other than that covered by the existing abstracts needs to be created to be temporarily used till the abstracting journals suggested in this study will be fully available. A realistic way of having such a bulletin may be to expand the present coverage of "The Abstracts of the Reports of the Government-Sponsored Projects" currently published by Korean Research Foundation.